

노 동 동 향

경제일반 동향

김 용 현*

◆ 경기회복 조짐

- 1월 경기는 수출호조에 기인하여 전반적으로 회복(그림 1 참조)
 - 현재의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9.7로 전년동기대비 1.3포인트 낮지만 2003년 8월 이후로 소폭 개선되고 있음.
 -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보다 0.2포인트 증가
 - 1월 선행종합지수는 재고순환지표, 입·이직자비율 등이 증가하여 전월 보다 0.4% 증가하였고, 전년동기대비로는 2.3% 증가
 - 동행종합지수는 수출액, 비농가취업자수 등이 증가하여 전월보다 0.7%, 전년동기보다 5.6% 증가한 121.7을 기록
 - 2003년 1월 후행종합지수 또한 전년동기대비 0.7%, 전년동기대비 5.2% 상승한 123.0를 나타냄.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yhk08@kli.re.kr).

<표 1> 경기종합지수 동향

(단위 : 2000=100.0)

	2002	2003						2004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p			1/4분기 1월p
						11월	12월	
선행종합지수 ¹⁾	108.6	108.1	106.7	108.7	110.5	110.5	111.0	111.4
동행종합지수 ²⁾	113.6	115.3	115.3	116.4	119.7	119.7	120.8	121.7
후행종합지수 ³⁾	115.5	117.4	118.9	120.3	121.6	121.6	122.1	123.0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100.8	100.5	98.8	98.0	99.2	99.1	99.5	9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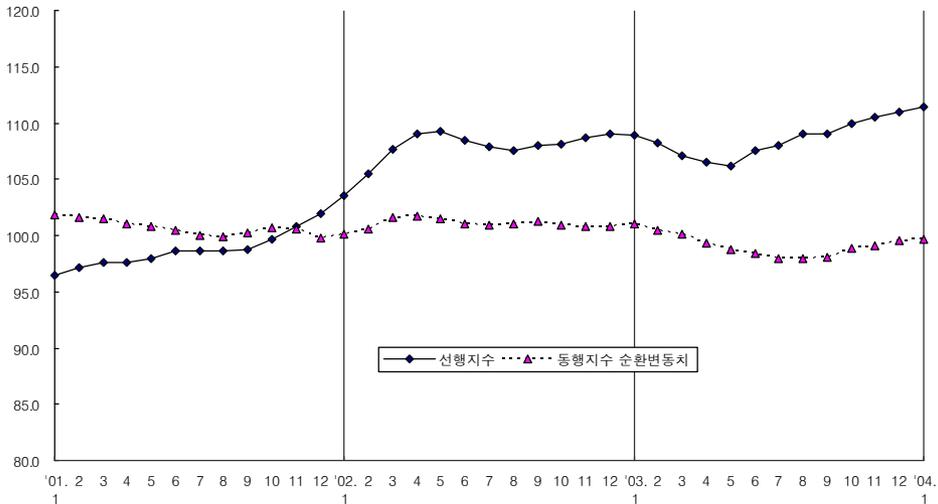
주 : p는 잠정치임. 분기별 자료는 월별자료의 평균치임.

- 1) 선행종합지수란 사전에 경기동향을 예측하는 지표로서 통화량과 같이 장래의 경제활동수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지표나 수입승인액, 기계수주액 등과 같이 앞으로 일어날 경제현상을 예시하는 지표로 구성되어 있음.
- 2) 동행종합지수란 현재의 경기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산업생산지수, 도소매 판매액지수 등과 같이 국민경제 전체의 경기변동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국민경제의 변동 그 자체를 나타내는 지표로 구성.
- 3) 후행종합지수란 경기의 변동을 사후에 확인하는 기계류 수입액, 생산자 재고지수 등과 같은 지표들로 구성.

자료 : 통계청, 『2004년 1월 산업활동동향』, 2004. 2.

[그림 1] 경기종합지수 동향

(단위 : 2000=100.0)



자료 : 통계청, KOSIS.

◆ 소비 감소

○ 소비는 전년동기대비 감소

- 도소매 판매는 115.8(2000=100.0)로 자동차 및 차량연료(-9.8%), 소매업(-2.5%), 도매(-0.9%), 백화점(-13.6%)에서 감소하여 전년동기대비 2.5% 감소
- 계절조정지수를 고려한 소비¹⁾는 전월에 비해 자동차 판매 및 차량연료, 도매업에서 증가하여 1.8% 증가

○ 1월 내수용소비재 출하는 102.1(2000=100.0)로 내구소비재(-12.9%)와 비내구소비재(-6.3%)에서 모두 감소하여 전년동기대비 8.4% 하락

- 내구소비재에서 휴대용전화기, 싱크대 등은 증가하였으나 승용차, 냉장고 등에서 감소하여 12.9% 감소
- 비내구소비재는 담배, 의약품 등에서는 증가하였으나 서적, 남자기성복 등에서 감소하여 6.3% 감소

<표 2> 소비 동향

(단위 : 2000=100.0, 불변, %)

	2002	2003							2004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p	11월		12월 ^p	1월 ^p
						11월	12월 ^p	1월 ^p	
도소매 판매	115.4 (8.3)	113.9 (-1.3)	113.4 (1.5)	113.4 (-1.7)	110.8 (-2.5)	118.0 (-2.2)	115.9 (-3.7)	121.0 (-1.2)	115.8 (-2.5)
내수용소비재 출하	111.1 (8.3)	104.5 (-5.9)	106.4 (-1.6)	103.2 (-7.4)	102.2 (-6.4)	108.7 (-6.5)	104.1 (-9.2)	111.9 (-2.7)	102.1 (-8.4)
내 구 재	120.6 (17.1)	106.7 (-11.5)	109.8 (-4.4)	109.4 (-12.6)	100.6 (-15.0)	106.7 (-13.8)	104.0 (-16.5)	106.7 (-10.7)	96.9 (-12.9)
비 내 구 재	106.9 (4.1)	103.4 (-3.1)	104.9 (-0.1)	100.3 (-4.6)	102.9 (-1.9)	109.7 (-2.7)	104.1 (-5.4)	114.3 (1.2)	104.5 (-6.3)

주:()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p는 잠정치임.

도소매업 판매는 자동차 판매 및 차량연료 소매업, 도매업, 소매업 부문을 조사대상으로 하는 『도소매업동태조사』에 기초하는 지수임.

자료 : 통계청, 『2004년 1월 산업활동동향』, 2004. 2.

1) 도소매 판매는 계절에 민감하게 반응함을 감안하여 전기대비 증감률을 계산할 때는 계절조정치를 기준으로 함(도소매 판매 계절조정지수는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각호를 참조할 것).

◆ 투자 부진

○ 설비투자 부진

- 설비투자지수는 100.4(1995=100.0)로 정밀기기 등은 증가하였으나, 자동차 및 컴퓨터 등에 대한 투자가 감소하여 전년동기대비 3.1% 감소
- 국내 기계수주는 민간(조선, 영상음향통신 및 부동산서비스업) 및 공공부문(주택용 엘리베이터, 철도 배전용 차단기)이 모두 증가하여 전년동기대비 13.2% 증가

○ 건설투자 둔화

- 지난 2년 동안 호조를 보인 건설경기는 1월 들어 둔화되고 있음.
- 국내 건설수주는 공공부문(도로교통, 주택, 철도궤도) 발주는 증가하였으나, 민간부문(주택, 사무실, 학교병원) 발주는 감소하여 전년동기대비 14.3% 감소
- 국내 건설기성은 공공부문에서 발주된 공사실적은 감소하였으나, 민간발주 공사실적이 증가하여 전년동기대비 7.4% 증가
- 국내 건설기성의 공종별로는 건축공사는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축이 모두 증가하여 17.5% 증가하였으나, 토목공사는 일반토목 등이 감소하여 8.2% 감소

<표 3> 투자 동향

(단위 : 1995=100.0, 십억원, %)

	2002	2003							2004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p	4/4분기		4/4분기	
						11월	12월		
설비투자지수	123.0 (1.6)	117.3 (-4.6)	120.3 (-3.4)	121.1 (-3.7)	108.6 (-7.0)	119.3 (-4.7)	115.1 (-8.3)	123.2 (-1.6)	100.4 (-3.1)
국내기계수주	24,511 (21.0)	22,436 (-8.5)	5,574 (-16.8)	5,758 (-3.4)	5,458 (-7.5)	5,643 (-5.0)	1,707 (-10.8)	1,864 (-9.1)	2,054 (13.2)
국내건설수주 ¹⁾	67,834 (33.0)	83,072 (22.5)	16,520 (3.3)	24,320 (50.5)	18,814 (47.6)	23,418 (2.1)	6,261 (-14.8)	10,958 (6.7)	4,492 (-14.3)
국내건설기성 ²⁾	56,216 (11.2)	66,775 (18.8)	14,035 (20.7)	16,497 (18.4)	16,082 (17.9)	20,161 (18.6)	6,193 (12.2)	8,053 (24.4)	4,871 (7.4)

주: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p는 잠정치임. 1), 2)는 민간유치사업과 국내 외국기관 발주분 포함.

설비투자지수는 1995=100.0으로 산출된 지수이며, 나머지는 경상금액임.

1) 국내 건설수주란 일반 건설업체의 국내 건설공사 수주액을 공종 및 발주자별로 조사하여 국내 건설경기 동향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

2) 국내 건설기성이란 국내 건설공사기성액(도급공사액과 직영공사액)을 공종 및 발주자별로 조사하여 건설 경기동향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

자료: 통계청, 『2004년 1월 산업활동동향』, 2004. 1.

◆ 수출입 증가세 확대

- 2004년 2월 중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45.9% 증가한 194.6억달러 기록
 - － 1988년 8월의 수출증가율(52.6%) 이후 최대의 수출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 2월 수출규모로는 사상최대치
 - － 2월 중 일평균 수출액은 8.5억달러로 전월에 이어 3개월 연속 8억달러대 기록
 - － 품목별로는 반도체(75.6%), 선박(49.4%), 무선통신기기(48.1%), 컴퓨터(50.5%), 자동차(60.5%) 등 주요 품목이 모두 40% 이상 높은 수출증가율을 기록
 - － 지역별로는 대중국 수출이 급신장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미국·EU·아세안·일본 등 주요 수출시장에서 모두 큰 폭의 증가세 기록
- 2월 중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25.6% 증가한 174.1억달러 기록
 - － 원자재가격 상승과 기계류 등 자본재 수입의 증가폭이 확대된데 기인하여 수입액은 작년 9월 이후 6개월 연속 두 자리수 증가율을 기록
 - － 원자재는 주요 에너지원의 수입증가와 원자재가격의 상승에 따른 철강금속제품의 수입이 급증하고, 원유는 전년동기대비 27.6% 증가
 - － 소비재는 소비심리의 회복세에 따라 가전제품을 중심으로 수입이 전월(1.6%)에 비해 다소 호전
 - － 국가별 수입은 일본이 전년동기대비 34.7% 증가한 28.2억달러로 가장 많으며, 미국(15.2억달러, 2.8%) 중국(12.6억달러, 29.7%)순임.
- 평균환율은 전월대비 1.4% 하락하고, 전년동기대비 2.2% 감소한 1,166.2원 기록

<표 4> 대외거래 동향

(단위 : 백만달러, %, 원/달러)

	2002	2003				2004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12월	1월	2월	
수 출 액	162,471 (8.0)	193,817 (19.6)	43,036 (20.7)	46,053 (14.4)	47,828 (15.9)	56,900 (25.6)	19,729 (31.3)	18,999 (32.7)	19,460 (45.9)
수 입 액	152,126 (7.8)	178,827 (17.5)	44,223 (30.9)	41,711 (12.2)	42,971 (10.5)	49,922 (18.1)	17,624 (22.0)	16,122 (11.2)	17,409 (25.6)
평 균 환 율	1251.2	1191.9	1,202.5	1,208.8	1,174.7	1,181.8	1,191.9	1,182.2	1166.2

주 : 통관기준(수출액(FOB), 수입액(CIF)), 수출·수입액은 산업자원부 자료, 평균환율은 종가기준임.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 산업자원부, 『2004년 수출입 실적(잠정)평가』, 2004. 2.
한국은행, 경제통계 DB.

◆ 생산 증가세 지속

- 1월 산업생산지수는 115.3(2000=100.0)으로 전년동기대비 4.8% 증가
 - 자동차(-9.2%), 사무회계용기계(-20.6%) 등은 감소하였으나, 반도체(53.8%), 영상음향통신(16.2%) 등이 증가한데 기인
 - 제조업 생산지수는 113.6(2000=100.0)으로 전년동기대비 5.2% 증가하였는데, 이는 제조업 중 중화학(9.3%)의 생산증대가 경공업(-8.5%)의 생산감소를 상쇄하였기 때문임.
 - 1월 서비스업의 생산(부가가치 기준)²⁾은 113.7(2000=100.0)로 전년동기대비 1.7% 감소하였으며, 항목별로는 보건 및 사회 복지사업(의료업),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 및 임대업, 금융 및 보험업, 도매 및 소매업, 교육서비스업 등이 부진하여 감소세를 보임.
- 1월 제품 출하는 113.4(2000=100.0)로 전년동기대비 4.0% 증가하고, 재고는 112.9(2000=100.0)로 전년동기대비 3.2% 증가
 - 출하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내수 출하가 3.1% 감소한 반면, 수출출하는 17.7% 증가
 - 재고는 제1차금속(-8.6%), 섬유제품(-5.6%) 등에서는 감소하였으나, 자동차(46.2%), 화학제품(6.7%), 비금속광물(22.3%) 등에서 증가
- 1월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80.5로 전년동기대비 2.3% 증가하고 전기대비 0.1% 증가
 - 반도체, 기계장비, 영상음향통신 등은 증가하였으나 자동차, 조립금속, 음식료품 등에서 감소

2) 통계청의 서비스업 활동지수는 「서비스업동태조사」 결과와 다른 통계(도소매업 판매액지수) 및 외부기관 자료(금융·보험업, 의료업 등)를 종합하여 2000년을 기준(2000=100.0)으로 작성한 것임(기준년도가 2000년으로 변경되었음).

<표 5> 생산 동향

(단위 : %, 2000=100.0)

	2002	2003								2004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p	11월	12월	p	1/4분기
생 산	108.8 (8.0)	114.4 (5.1)	110.0 (6.1)	112.6 (3.0)	109.6 (3.0)	125.4 (7.4)	122.3 (4.9)	127.8 (10.9)	115.3 (4.8)	
제 조 업	108.4 (8.2)	114.0 (5.2)	108.6 (5.8)	112.6 (3.1)	109.5 (3.1)	125.3 (8.3)	122.3 (5.3)	126.9 (11.4)	113.6 (5.2)	
서 비 스 업	116.0 (9.8)	117.0 (1.3)	114.1 (3.2)	117.9 (1.1)	117.2 (0.6)	120.7 (0.4)	117.7 (0.0)	124.9 (1.1)	113.7 (-1.7)	
출 하	109.3 (7.9)	113.9 (4.2)	109.6 (4.5)	112.7 (2.8)	108.9 (2.5)	124.3 (6.8)	121.5 (3.7)	126.0 (9.9)	113.4 (4.0)	
재 고	104.5 (-0.8)	110.5 (5.7)	111.7 (9.6)	112.3 (9.2)	110.4 (8.1)	110.5 (5.7)	109.4 (5.9)	110.5 (5.7)	112.9 (3.2)	
평 균 가 동 률	78.4	78.3	78.5	77.3	76.9	80.4	79.6	80.4	8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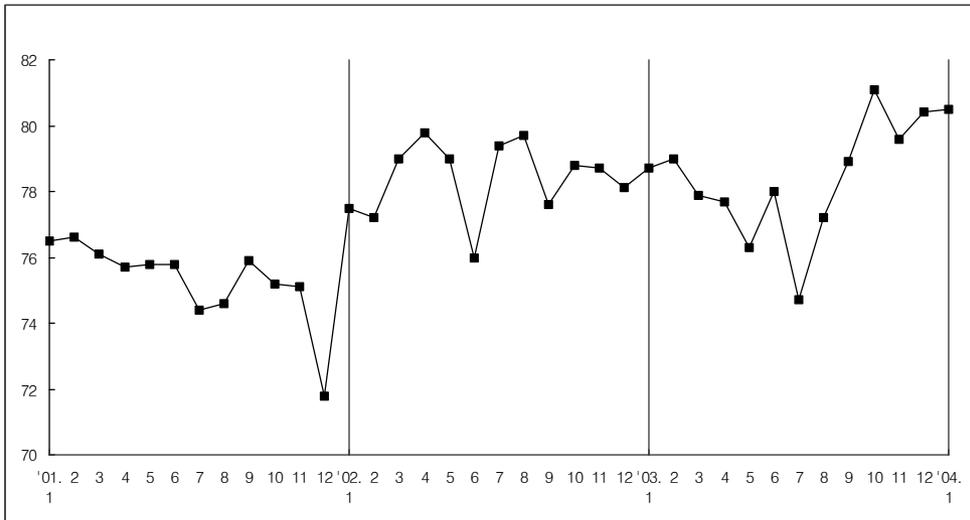
주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평균가동률은 %, p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2004년 1월 산업활동동향』, 2004. 2.

_____, 『2004년 1월 서비스업활동동향』, 2004. 3.

[그림 2] 제조업 평균가동률 동향

(단위 : %)



자료 : 통계청, KOSIS.

◆ 물가상승 지속

- 2004년 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기대비 3.3% 상승한 113.2이며, 전기대비로도 0.4% 상승
 - 전기에 비해 농축수산물(감자, 꾀, 닭고기, 돼지고기)이 상승하고 석유류 등 공업제품과 도시가스,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서비스 부문도 상승
 - 전년동기대비 주요 도시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서울(3.9%), 울산(3.6%), 광주(3.5%), 대전(3.0%), 인천(2.9%), 부산(2.6%), 대구(2.4%)순임.
- 채감물가를 반영하는 생활물가지수는 전기대비 0.7%, 전년동기대비 4.2% 각각 상승한 115.3임.
- 2004년 2월 중 생산자물가는 105.6으로 전년동기대비 4.5%, 전기대비 1.2% 각각 상승
 - 부분별로 농림수산물(20.7%)이 출하량 감소로 채소류 및 과일류가 상승하고 수요증가로 축산물의 생산자 가격이 상승
 - 공산품(4.0%)이 국제유가 상승으로 석유·화학제품이 오르고 고철 및 비철금속 등 원자재가격 상승세가 이어져 금속1차제품 및 전기기계장치가 오른데 기인
 - 서비스도 부동산 및 전문서비스를 중심으로 전년동기대비 3.1% 상승

<표 6> 물가지수 동향

(단위: %, 2000=100.0)

	2002	2003						2004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12월	1월	2월	
소비자 물가지수 ¹⁾	106.9 (2.7)	110.7 (3.6)	109.8 (4.1)	110.5 (3.4)	110.8 (3.2)	111.7 (3.4)	112.0 (3.4)	112.7 (3.4)	113.2 (3.3)
생활 물가지수 ²⁾	107.7 (2.5)	112.1 (4.1)	111.1 (4.6)	111.7 (3.4)	112.1 (3.6)	113.3 (4.2)	113.5 (4.2)	114.5 (4.3)	115.3 (4.2)
생산자 물가지수 ³⁾	99.2 (-0.3)	101.4 (2.2)	101.2 (3.0)	101.0 (1.3)	101.1 (1.9)	102.3 (2.5)	102.9 (3.1)	104.3 (3.8)	105.6 (4.5)

주: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분기별 자료는 월별자료의 평균치임.

- 1) 소비자물가지수란 도시가구가 소비생활 영위를 위해 구입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변동을 파악하기 위해 작성하는 지수로 총 516개 품목을 조사하여 소비자의 구매력을 측정하는데 사용됨.
- 2) 생활물가지수란 일상생활에서 소비자들이 자주 구입하는 쌀, 배추, 쇠고기 등 156개 생활필수품을 대상으로 작성된 소비자물가지수의 보조지표.
- 3) 생산자물가지수란 1차 거래단계에서 기업상호간 거래되는 상품과 서비스의 평균적인 가격변동을 측정하기 위한 물가지수로 총 949개 품목을 대상으로 하며, 국내생산품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생산자 판매가격(공장도 가격)을 사용하여 작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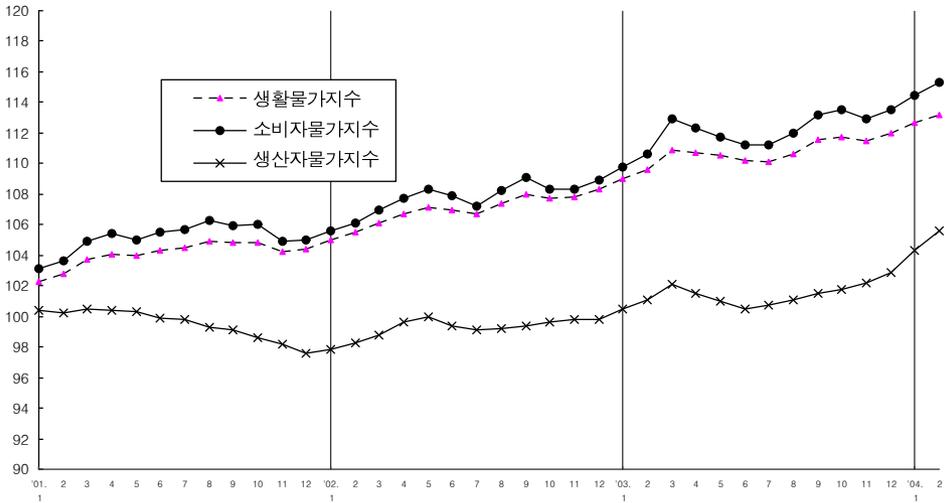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2004년 2월 중 생산자물가 동향』, 2004. 3.

통계청, 『2004년 2월 소비자물가 동향』, 2004. 2.

자료: 통계청, KOSIS, 한국은행, 경제통계 DB.

[그림 3] 물가지수

(단위 : 2000=100.0)



자료 : 통계청, KOSIS, 한국은행, 경제통계 DB.

◆ 2003년 국민계정(잠정)³⁾

- 2003년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 감소하였으나 수출과 건설 투자의 호조로 전년대비 3.1% 성장
- 경제활동별 성장내역을 보면, 농림어업(-7.1%)은 감소한 반면, 제조업(4.8%), 건설업(8.1%), 서비스업(1.8%)에서는 증가
 - 농림어업은 벼 등 재배작물의 생산이 감소한 데다 축산업의 생산도 부진하여 전년대비 7.1% 감소
 - 제조업은 섬유·의복, 인쇄 및 출판, 음식료품 등 내수관련 업종의 생산이 감소하였으나, 반도체 및 전자부품, 영상·음향 및 통신기기, 운수장비 등의 생산이 수출호조로 늘어나 전년대비 4.8% 증가
 - 건설업은 주거용 및 상업용 건물건설이 크게 늘어나 전년대비 8.1% 증가
 - 서비스업은 내수부진으로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이 감소한 데다 운수통신업 등 여타 서비스업도 성장세가 둔화되어 전년대비 1.8% 성장에 그침.

3) 본 내용은 한국은행의 ‘2003년 국민계정(잠정)’과 ‘국민계정 2000년 기준년 개편 및 1993 SNA 이행 결과’에 대해 요약한 것이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은행(<http://www.bok.or.kr/>)보도자료 참조.

<표 6> 경제활동 및 지출항목별 증감률(2000년 가격 기준)

(단위: %)

	연간 성장률		성장기여율	
	2002	2003p	2002	2003p
국내총생산(GDP)	7.0	3.1	100.0	100.0
농림어업	-3.5	-7.1	-2.1	-8.8
제조업	7.6	4.8	28.0	40.3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7.7	5.7	2.6	4.4
건설업	2.8	8.1	3.0	19.2
서비스업	7.8	1.8	54.9	28.5
국민총소득(GNI)	7.0	1.8		

주: p는 잠정치임.

자료: 한국은행, 『2003년 국민계정(잠정)』, 2004. 3.

- 산업별 GDP 성장기여율을 보면 제조업이 전년의 28.0%에서 40.3%로 높아지고 건설업도 전년의 3.0%에서 19.2%로 상승한 반면, 서비스업은 전년의 54.9%에서 28.5%로 하락

◆ 2003년 국민계정 기준년 개편내용

- 국민계정의 구조변화를 반영하고 국민계정 통계의 유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민계정 통계의 기준년을 1995년에서 2000년으로 개편
 - 통상적인 기준년 개편작업 외에 UN, OECD 및 IMF 등 국제기구에서의 요구와 개선요청 내용 등을 반영
- 개편대상 계열은 1995~2003년 연간 및 분기계열로 그 결과는 2003년 연간 잠정 국민계정 발표시 함께 공표하며, 2차 1970~1994년 계열은 2004년 말경 공표 예정
- 개편범위는 생산, 지출 및 분배에 관한 계정과 부표를 포함.
- 주요 개편내용
 - 1995년 이후의 경제구조 변화 및 상대가격 체계변화를 반영하고 주요 기초통계의 기준년을 일치시키기 위한 기준년 변경(1995년→ 2000년)
 - 기준년 개편을 완료한 통계명과 개편완료시기는 산업연관표(2003년 9월), 생산자물가지수(2003년 6월), 수출입물가지수(2003년 1월), 수출입단가지수(2002년 3월), 소비자물가지수(2002년 1월), 생산·출하·재고지수(2002년 12월), 농가판매(구입)가격지수(2003년 1월)임.

- 1993 SNA(System of National Account)에서 권고하고 있는 기준에 맞추어 이행하여 GDP 산출물 가격평가 기준을 생산자가격에서 기초가격으로 변경, 금융중개 서비스(FISIM)의 배분, 자본형성 및 고정자본소모 범위 확대, 연쇄지수(Chain Index)의 적용 확대, 국제표준산업분류(ISIC)로의 산업분류체계 변경
- 이중환가법(Double Deflation Method)의 전면 적용, 서베이 확대 및 사교육비 반영 등과 같은 추계방법의 개선 및 포괄범위 확대 등을 통해 국민계정 통계의 품질 제고와 IMF 통계품질평가시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
- 부가가치 추계부문의 대폭 확대(77개 부문→368개 부문) 및 제조업의 산업형태별 분류 도입 등 통계제공의 세분화 및 다양화 등을 통한 국민계정 통계의 유용성 제고 등임.

노동동향

고용 동향

김 용 현*

◆ 실업자 증가

- 2월 중 실업자는 900천명으로 전년동기대비 79천명(9.5%) 증가하였으며, 실업률은 3.9%로 0.2%포인트 증가
 - 실업자와 실업률의 증가는 2월 졸업자들이 대거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 계절적 요인을 감안해도 전년동기(822천명, 3.7%)와 비교하여 높은 수준이며, 계절조정 실업률은 다소 낮은 3.3% 수준
 - 2004년 2월 실업자는 2001년 3월(1,066천명) 이후 최고치
 - 성별 실업자를 보면, 남성 실업자는 536천명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18천명(3.5%) 증가하여 실업률은 4.0%, 여성 실업자는 364천명으로 전년동기대비 60천명(4.3%) 증가하여 여성 실업자수 증가가 두드러지며 실업률은 3.9%임.
- 2004년 2월 중 취업자는 22,005천명으로 전년동기대비 507천명(2.4%) 증가
 - 성별 취업자를 보면 남성은 12,974천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81천명(1.4%) 증가하였으며, 여성 취업자는 9,031천명으로 326천명(3.7%) 증가
- 2004년 2월 경제활동인구는 전년동기대비 2.6% 증가한 22,906천명이며, 비경제활동인구는 전년동기대비 -1.4% 감소한 14,671천명
 - 경제활동참가율은 61.0%로 전년동기에 비해 1.0%포인트 상승
 - 전기대비 경제활동인구는 586천명(2.6%) 증가하였으나, 비경제활동인구는 84천명(-0.6%) 감소하였음.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yhk08@kli.re.kr).

〈표 1〉 최근의 고용동향

(단위 : 천명, %)

	2002	2003						2004		
			1/4분기				1/4분기		1월	2월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2월			
경제활동인구	22,877 (2.1)	22,916 (0.2)	22,439 (0.4)	23,055 (-0.2)	23,050 (-0.1)	23,119 (0.6)	22,922 (0.7)	22,790 (2.0)	22,906 (2.6)	
참가율	61.9	61.4	60.3	61.8	61.6	61.7	61.1	60.7	61.0	
취업자	22,169 (2.8)	22,139 (-0.1)	21,633 (0.6)	22,303 (-0.5)	22,295 (-0.5)	22,325 (-0.0)	22,096 (0.2)	21,936 (1.7)	22,005 (2.4)	
실업자	708	777	806	751	756	794	825	854	900	
실업률	3.1	3.4	3.6	3.3	3.3	3.3	3.6	3.7	3.9	
비경제활동인구	14,086 (-0.5)	14,424 (2.4)	14,755 (1.9)	14,243 (3.2)	14,341 (2.8)	14,357 (1.7)	14,584 (1.5)	14,755 (-0.4)	14,671 (-1.4)	

주: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통계청, 『2004년 2월 고용동향』, 2004. 3.

◆ 40대와 대졸여성 실업자 증가

- 2004년 2월 연령계층별 실업자는 전년동기에 비해 모든 연령계층에서 증가
 - 실업자는 40대(33천명, 27.7%)의 증가가 두드러짐.
 - 실업률도 모든 연령계층에서 상승하였는데, 15~19세의 실업률이 14.3%로 전년 동기대비 2.9% 포인트 상승
 - 청년층(15-29세) 실업자수는 전년동기대비 11천명(2.4%) 증가한 460천명이며, 청년층 실업률은 9.1%로 전년동기대비 0.3%포인트 상승하였음.
- 2004년 2월 교육정도별 실업자는 전년동기대비 중졸 이하(34천명, 0.6%포인트), 고졸(18천명, 0.1%포인트), 대졸 이상(26천명, 0.1%포인트) 등 모든 교육정도에서 증가하였음.
 - 전월에 비해서는 대졸 이상(86천명, 1.1%포인트)은 증가하였으나, 고졸(35천명, -0.3%포인트)과 중졸 이하(5천명, -0.1%포인트)에서는 소폭 감소하였음.
 - 대졸 이상 실업자의 비중이 높는데 이는 2월 대학을 졸업한 대학 졸업생들의 노동시장 진입과도 무관하지 않음.
 - 특히 대졸여성의 실업자수는 142천명으로 전년동기대비 30천명(26.8%) 증가하여, 역대 최고치를 경신

<표 2> 연령별 실업자 및 실업률

(단위: 천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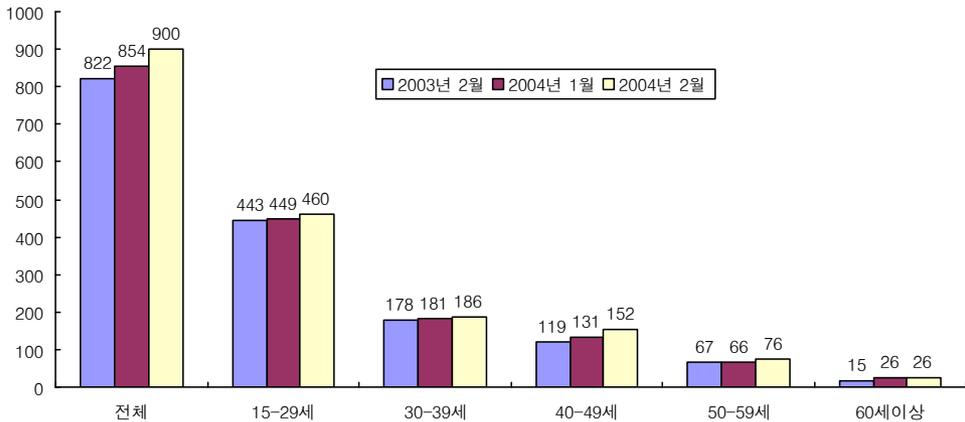
	2002	2003						2004	
		1/4분기		2/4분기		3/4분기		1/4분기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전 체	708 (3.1)	777 (3.4)	806 (3.6)	751 (3.3)	756 (3.3)	794 (3.4)	825 (3.6)	854 (3.7)	900 (3.9)
15~29세	341 (6.6)	383 (7.7)	424 (8.4)	362 (7.3)	350 (7.0)	394 (7.9)	432 (8.6)	449 (8.8)	460 (9.1)
15~19세	39 (11.1)	37 (12.0)	38 (11.6)	31 (11.2)	36 (11.1)	45 (14.7)	56 (16.0)	60 (15.3)	47 (14.3)
20~29세	302 (6.3)	345 (7.4)	387 (8.2)	331 (7.1)	314 (6.7)	349 (7.5)	376 (8.0)	389 (8.3)	413 (8.7)
30~39세	177 (2.8)	182 (2.9)	177 (2.8)	179 (2.8)	184 (2.9)	188 (3.0)	180 (2.8)	181 (2.9)	186 (2.9)
40~49세	111 (1.9)	128 (2.1)	118 (2.0)	126 (2.0)	197 (2.2)	129 (2.1)	129 (2.1)	131 (2.1)	152 (2.4)
50~59세	56 (1.8)	66 (2.0)	69 (2.2)	67 (2.0)	66 (2.0)	60 (1.8)	60 (1.8)	66 (2.0)	76 (2.3)
60세 이상	22 (1.0)	19 (0.9)	18 (0.9)	18 (0.8)	19 (0.8)	23 (1.0)	24 (1.2)	26 (1.3)	26 (1.3)

주:()안의 수치는 실업률.

자료: 통계청, 『2004년 2월 고용동향』, 2004. 3.

[그림 1] 연령계층별 실업자

(단위: 천명)



자료: 통계청, 『2004년 2월 고용동향』, 2004. 3.

〈표 3〉 교육정도별 실업자 및 실업률

(단위: 천명, %)

	2002	2003						2004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12월	1월	2월	
전 체	708 (3.1)	777 (3.4)	806 (3.6)	751 (3.3)	756 (3.3)	794 (3.4)	825 (3.6)	854 (3.7)	900 (3.9)
중 졸 이 하	138 (2.1)	122 (2.0)	116 (2.0)	110 (1.8)	131 (2.2)	132 (2.2)	145 (2.5)	150 (2.7)	145 (2.6)
고 졸	358 (3.5)	411 (4.1)	426 (4.3)	385 (3.9)	396 (4.0)	438 (4.3)	471 (4.6)	494 (4.8)	459 (4.5)
대 졸 이 상	212 (3.5)	243 (3.5)	264 (3.9)	256 (3.7)	229 (3.3)	224 (3.2)	209 (3.0)	210 (3.0)	296 (4.1)

주:()안의 수치는 실업률.

자료: 통계청, 『2004년 2월 고용동향』, 2004. 3.

◆ 취업자수 증가

- 2004년 2월 중 취업자는 전년동기에 비해 507천명(2.4%) 증가한 22,005명을 기록하고, 전기대비로는 69천명(0.3%) 증가
 - 전년동기대비 산업별 취업자수는 농림어업(91천명, -5.5%), 전기·운수·창고 및 금융업(7천명, -0.3%),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2천명, 0.0%)은 감소하였으나, 사업·개인 및 공공서비스업(453천명, 7.7%), 제조업(120천명, 2.9%)에서 크게 증가하였음.
 - 사업·개인 및 공공서비스업의 취업자는 지난해 중반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이며, 제조업의 취업자는 지난 연말부터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 전기대비로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20천명, -0.3%), 건설업(12천명, -0.7%), 전기·운수·창고 및 금융업(2천명, 0.1%)은 감소한 반면, 농림어업(66천명, 4.4%), 사업·개인 및 공공서비스업(20천명, 0.3%), 제조업(18천명, 0.4%)은 증가하였음.

<표 4> 산업별 취업자 추이

(단위: 천명, %)

	2002	2003						2004	
							1/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2월	1월	2월
전 산업	22,169 (2.8)	22,139 (-0.1)	21,633 (0.6)	22,303 (-0.5)	22,303 (-0.5)	22,325 (0.0)	22,096 (0.2)	21,936 (1.7)	22,005 (2.4)
농림어업	2,069 (-3.7)	1,950 (-5.8)	1,699 (-1.6)	2,127 (-5.5)	2,090 (-7.2)	1,882 (-8.0)	1,575 (-11.0)	1,489 (-6.7)	1,555 (-5.5)
제조업	4,241 (-0.6)	4,205 (-0.8)	4,168 (-1.7)	4,238 (-0.5)	4,166 (-1.1)	4,246 (-0.1)	4,257 (0.4)	4,254 (2.7)	4,272 (3.0)
건설업	1,746 (10.2)	1,816 (4.0)	1,734 (8.3)	1,854 (3.5)	1,821 (2.2)	1,854 (2.3)	1,851 (2.5)	1,740 (2.1)	1,728 (1.8)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5,998 (2.1)	5,852 (-2.4)	5,919 (-1.2)	5,834 (-2.8)	5,805 (-3.5)	5,851 (-2.1)	5,902 (-1.6)	5,939 (-1.5)	5,919 (0.0)
사업·개인 및 공공서비스업	5,940 (7.2)	6,139 (3.4)	5,927 (2.6)	6,055 (1.6)	6,253 (4.6)	6,322 (4.5)	6,325 (4.8)	6,327 (7.1)	6,347 (7.7)
전기·운수·창고 및 금융업	2,157 (0.7)	2,160 (0.1)	2,168 (0.8)	2,178 (1.5)	2,142 (-0.8)	2,153 (-1.0)	2,167 (-0.9)	2,167 (-0.1)	2,165 (-0.3)

주: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자료: 통계청, 『2004년 2월 고용동향』, 2004. 3.

◆ 임금근로자 소폭 증가

- 2004년 2월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수를 보면, 비임금근로자는 7,456천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5천명(0.1%) 증가하였고, 임금근로자도 14,549천명으로 전년동기대비 502천명(3.6%) 증가
 -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295천명, 4.1%)와 임시근로자(191천명, 3.9%), 일용근로자(18천명, 0.9%) 모두 증가
 - 2004년 2월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의 비중은 51.2%로 2004년 1월의 수준과 동일
- 전기대비로도 비임금근로자(28천명, 0.4%)와 임금근로자(41천명, 0.3%)는 모두 증가하였음.

〈표 5〉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구성

(단위: 천명, %)

	2002	2003						2004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12월	1월	2월	
전 체	22,169 (2.8)	22,139 (-0.1)	21,633 (0.6)	22,303 (-0.5)	22,295 (-0.5)	22,325 (0.0)	22,096 (0.2)	21,936 (1.7)	22,005 (2.4)
비임금근로자	7,988 (0.9)	7,736 (-3.2)	7,466 (-2.4)	7,794 (-4.6)	7,938 (-3.1)	7,748 (-2.5)	7,472 (-2.3)	7,428 (0.0)	7,456 (0.1)
임금근로자	14,181 (3.8)	14,402 (1.6)	14,168 (2.2)	14,509 (1.8)	14,356 (0.9)	14,577 (1.4)	14,624 (1.5)	14,508 (2.6)	14,549 (3.6)
상용근로자	6,862 (2.2)	7,269 (5.9)	7,176 (6.2)	7,250 (5.8)	7,268 (5.7)	7,383 (6.1)	7,411 (6.2)	7,426 (4.0)	7,453 (4.1)
임시·일용 근로자	[48.4]	[50.5]	[50.6]	[50.0]	[50.6]	[50.6]	[50.7]	[51.2]	[51.2]
임시·일용 근로자	7,319 (5.4)	7,134 (-2.5)	6,992 (-1.6)	7,259 (-1.9)	7,088 (-3.7)	7,194 (-3.2)	7,213 (-3.0)	7,082 (1.2)	7,098 (-0.8)
	[51.6]	[49.5]	[49.4]	[50.0]	[49.4]	[49.4]	[49.3]	[48.8]	[48.8]

주: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안의 수치는 임금근로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 신규실업자 감소, 전직실업자 증가

- 2004년 2월 중 전체 실업자 900천명 중 신규실업자는 82천명으로 전년동기대비 38천명(-31.7%) 감소하였으나, 전직실업자는 818천명으로 116천명(16.1%) 증가
 - 신규실업자를 성별로 보면, 남성은 39천명으로 전년동기대비 21천명(-35.0%) 감소하고, 여성도 43천명으로 17천명(-28.3%) 감소
 - 전직실업자 중 이직한지 3~5개월된 실업자수가 전월에 비해 상당히 증가(20.0%, 41천명)하고, 6~11개월과 12개월 이상 된 전직실업자수도 소폭 증가하여 실업상태가 점차 길어지고 있는 추세
 - 전직실업자의 구직기간별 특성을 살펴보면, 3개월 미만인 경우가 477천명(58.3%)으로 3~5개월(246천명, 30.1%), 6~11개월(85천명, 10.4%), 12개월 이상(10천명, 1.2%)보다 많음.
 - 전직실업자를 성별로 보면 남성이 410천명으로 전년동기대비 49천명(13.6%) 증가하고, 여성도 261천명으로 69천명(35.9%) 증가

<표 6> 구직기간별 실업자

(단위: 천명, %)

	2002	2003						2004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12월	1월	2월	
신규실업자	44 [6.2]	67 [8.6]	106 [13.2]	60 [8.0]	46 [6.1]	58 [7.3]	72 [8.7]	86 [10.1]	82 [10.1]	
전직실업자	664 [93.8]	710 [91.4]	700 [86.8]	692 [92.1]	710 [93.9]	736 [92.7]	754 [91.3]	768 [89.9]	818 [89.9]	
3개월 미만	387 [58.3]	450 [63.4]	459 [65.6]	443 [64.0]	435 [61.3]	461 [62.6]	465 [61.7]	473 [61.5]	477 [58.3]	
3~5개월	186 [28.0]	188 [26.5]	189 [27.0]	186 [26.9]	193 [27.2]	184 [25.0]	198 [26.3]	205 [26.7]	246 [30.1]	
6~11개월	75 [11.3]	68 [9.6]	51 [7.3]	60 [8.7]	77 [10.4]	84 [11.4]	83 [11.0]	83 [10.8]	85 [10.4]	
12개월 이상	16 [2.4]	4 [0.6]	2 [0.3]	2 [0.3]	4 [0.6]	8 [1.1]	8 [1.1]	8 [1.0]	10 [1.2]	

주: []안의 수치는 구성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 근로시간 다소 증가

- 2004년 2월 중 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주당 48.1시간으로 전년동기대비 0.7시간 감소하였으나, 전기에 비해서는 0.2시간 증가
 - 2004년 2월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의 근로시간은 49.1시간으로 전년동기대비 0.4시간 감소
 - 2004년 2월 중 임시근로자의 근로시간은 49.6시간으로 전년동기대비 0.9시간 감소하였으며, 일용근로자는 40.7시간으로 1.4시간 감소
 - 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에 있으며, 특히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임.

<표 7>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별 주당근로시간

(단위: 시간/주)

	2002	2003						2004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12월	1월	2월	
임금근로자	49.1	48.2	48.8	49.3	45.7	48.8	48.7	47.9	48.1	
상용직	50.0	49.0	49.1	50.6	45.9	50.1	50.0	48.6	49.1	
임시직	50.9	49.7	50.6	50.4	47.9	50.0	50.1	49.7	49.6	
일용직	43.0	41.5	42.0	42.4	40.2	41.3	40.8	41.1	40.7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노	동	동	향
---	---	---	---

임금 동향

강승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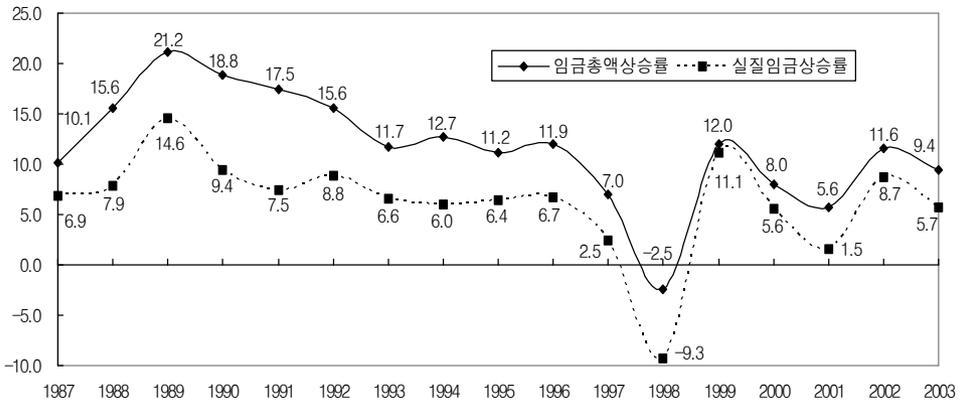
◆ 2003년 임금 9.2% 상승

- 2003년 5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2,127천원으로 전년에 비해 9.2% 상승
 - 이는 2002년의 임금총액 상승률 11.2%보다 2.0%포인트 하락한 수치임.
 - 10~12월(4/4분기) 임금총액은 2,227천원으로 전년동기대비 7.3% 상승하여 전년 동기(13.8%)보다 낮은 상승률을 기록하였으며, 12월 임금총액은 2,710천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7% 상승하여 전년동기(15.7%)보다 낮은 상승률 기록
 - 2003년 임금변화의 특징으로는 정액 및 특별급여 상승률은 전년보다 둔화된 가운데 초과급여 상승률은 증가, 수출산업과 내수산업으로 대표되는 경기양극화로 인한 서비스업의 임금상승률 둔화, 대규모와 소규모 사업체간 임금격차의 확대 지속 등임.
- 실질임금은 5.5% 상승
 - 소비자물가 상승분을 감안한 2003년 실질임금은 전년에 비해 5.5% 상승
 - 이를 임금총액 상승률 9.2%와 비교하면 실질임금 상승률이 3.7%포인트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2003년에 전년보다 높은 소비자물가 상승률로 인해 실질임금 상승률이 상쇄되었기 때문임.
 - 10~12월(4/4분기) 실질임금은 전년동기대비 3.7%, 12월 실질임금은 전년동기대비 2.2% 각각 상승함.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kangsb@kli.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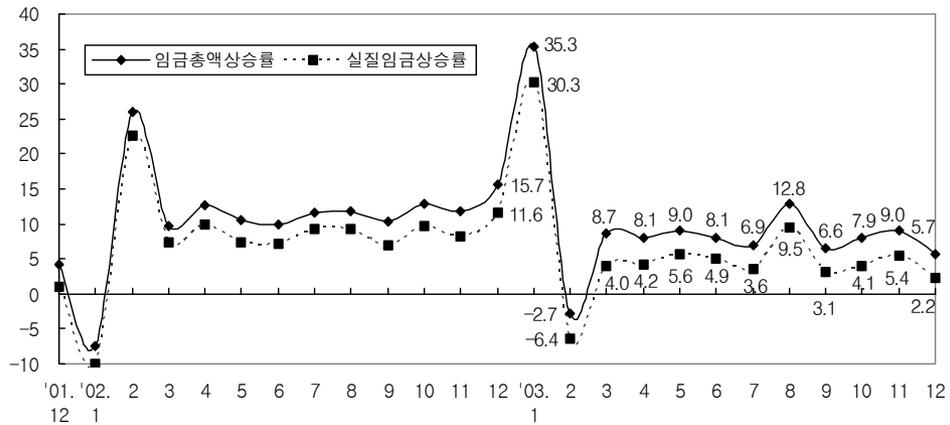
[그림 1] 연도별 임금상승률 추이(10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



[그림 2] 월별 임금상승률 추이(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



◆ 정액 및 특별급여 상승률 둔화

- 정액 및 특별급여 상승률은 전년보다 둔화된 반면, 초과급여 상승률은 증가
 - 2003년 5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정액급여는 1,532천원으로 전년 (1,408천원)에 비해 8.8% 상승하였으나 전년의 상승률 12.1%보다는 낮은 상승률 기록

<표 1> 임금관련 주요지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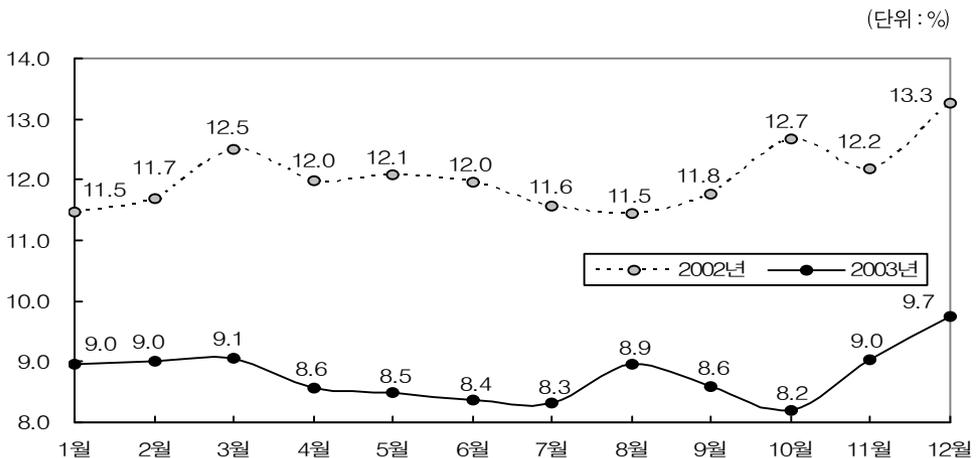
(단위 : 천원/월, 2000=100.0, %)

	2002	2003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2월	
					10월	11월	12월		
임 금 총 액	1,948 (11.2)	2,127 (9.2)	2,102 (12.9)	2,014 (8.3)	2,165 (8.6)	2,227 (7.3)	2,034 (7.9)	1,939 (9.0)	2,710 (5.7)
정 액 급 여	1,408 (12.1)	1,532 (8.8)	1,494 (9.0)	1,513 (8.4)	1,536 (8.6)	1,583 (9.0)	1,545 (8.2)	1,553 (9.0)	1,652 (9.7)
초 과 급 여	126 (-3.9)	135 (7.3)	128 (9.3)	135 (6.5)	133 (4.7)	145 (8.5)	148 (10.1)	143 (9.7)	143 (5.8)
특 별 급 여	413 (13.4)	460 (11.4)	481 (28.5)	366 (8.4)	496 (9.7)	499 (2.0)	341 (5.9)	243 (8.6)	915 (-0.9)
실 질 임 금 지 수	109.3 (8.2)	115.2 (5.5)	114.8 (8.5)	109.3 (4.7)	117.2 (5.3)	119.6 (3.7)	109.2 (4.1)	104.3 (5.4)	145.1 (2.2)
소 비 자 물 가 지 수	106.9 (2.7)	110.7 (3.6)	109.8 (4.1)	110.5 (3.4)	110.8 (3.2)	111.7 (3.5)	111.7 (3.7)	111.5 (3.4)	112.0 (3.4)

주:()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상승률.
 자료: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

- 특별급여는 460천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1.4%의 상승률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전년의 상승률 13.4%보다 2.0%포인트 낮은 수치임.
- 반면 초과급여 상승률은 7.3%로 전년의 -3.9%에 비해 11.2%포인트 높게 나타남.
- 10~12월(4/4분기)은 정액급여 9.0%, 초과급여 8.5%, 특별급여 2.0%의 상승률을 기록하였으며, 12월은 정액급여 9.7%, 초과급여 5.8%, 특별급여 -0.9%를 기록

[그림 3] 정액급여 상승률 추이



◆ 경기양극화에 따라 서비스업의 임금상승률 저조

- 건설업, 금융 및 보험업 등에서 높은 임금상승률을 기록한 반면, 숙박·음식점업, 부동산 임대업 등 서비스업은 낮은 상승률 기록
 - 2003년 건설업과 금융 및 보험업의 임금상승률은 각각 11.5%, 12.6%로 전산업 평균 상승률(9.2%)보다 높게 나타남.
 - 반면 숙박·음식점업, 부동산 임대업의 임금상승률은 각각 5.4%, 5.8%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저조한 상승률을 기록
 - 2003년 중 내수시장의 위축에 따라 이들 시장에 주로 의존하는 전통적인 서비스 산업의 임금상승률은 2002년도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낮아짐.

<표 2> 산업별 임금수준 및 상승률 동향

(단위: 천원/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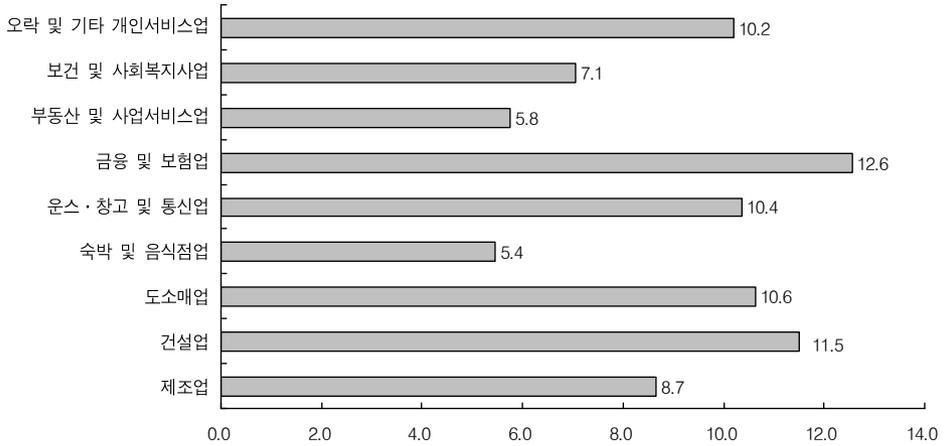
	2002	2003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2월	
					10월	11월	12월		
전 산업	1,948 (11.2)	2,127 (9.2)	2,102 (12.9)	2,014 (8.3)	2,165 (8.6)	2,227 (7.3)	2,034 (7.9)	1,939 (9.0)	2,710 (5.7)
제조업	1,857 (11.9)	2,018 (8.7)	1,984 (13.7)	1,873 (7.2)	2,056 (7.7)	2,155 (6.3)	1,963 (6.9)	1,781 (10.8)	2,722 (3.2)
건설업	1,859 (10.2)	2,072 (11.5)	2,058 (14.7)	1,937 (9.3)	2,144 (11.0)	2,152 (11.1)	1,976 (12.3)	1,979 (12.0)	2,501 (9.6)
도매 및 소매업	1,888 (9.4)	2,089 (10.6)	2,064 (13.0)	1,985 (9.1)	2,141 (11.2)	2,158 (8.9)	1,983 (7.9)	1,892 (12.0)	2,600 (7.5)
숙박 및 음식점업	1,364 (16.2)	1,439 (5.4)	1,409 (8.5)	1,415 (5.8)	1,436 (3.7)	1,491 (3.8)	1,507 (6.6)	1,388 (3.2)	1,577 (1.9)
운수·창고·통신업	1,926 (8.4)	2,126 (10.4)	2,040 (15.6)	2,115 (9.6)	2,163 (10.4)	2,179 (6.2)	2,085 (13.1)	2,015 (0.0)	2,438 (6.2)
금융 및 보험업	2,941 (13.4)	3,310 (12.6)	3,520 (16.3)	3,050 (12.1)	3,286 (11.9)	3,383 (9.9)	2,813 (8.8)	2,921 (9.3)	4,413 (10.8)
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1,753 (13.1)	1,854 (5.8)	1,817 (6.9)	1,811 (4.9)	1,877 (6.4)	1,915 (5.1)	1,758 (4.3)	1,728 (5.5)	2,259 (5.4)
사회개인서비스업	2,042 (12.4)	2,218 (8.6)	2,165 (10.6)	2,131 (8.2)	2,288 (7.8)	2,296 (8.3)	2,166 (8.5)	2,132 (9.2)	2,588 (7.4)

주:()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상승률.

자료: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

[그림 4] 2003년 산업별 임금상승률

(단위: %)



◆ 규모간 임금격차는 최근 2년간 확대 지속

- 2003년 5~9인 사업체의 임금은 500인 이상 사업체의 51.5% 수준
 - 2003년의 사업체 규모별 임금상승률은 500인 이상 규모가 전년대비 11.9%로 가장 높고, 300~499인이 5.0%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규모간 임금격차 확대 지속
 - 2003년의 500인 이상 사업체 임금을 100이라 했을 때, 규모간 격차는 전년과 비교하여 모든 규모에서 확대
 - 전년과 비교한 500인 이상 규모와의 임금격차는 300~499인 사업체에서 5.4포인트를 기록하여 가장 큰 증가폭을 나타냄.

<표 3> 사업체 규모별 임금수준 및 상승률 동향

(단위 : 천원/월, %)

	2002	2003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2월	
					10월	11월	12월		
전규모	1,948 (11.2)	2,127 (9.2)	2,102 (12.9)	2,014 (8.3)	2,165 (8.6)	2,227 (7.3)	2,034 (7.9)	1,939 (9.0)	2,710 (5.7)
5 ~ 9인	1,466 (9.1)	1,543 (5.2)	1,509 (5.0)	1,479 (4.1)	1,595 (5.0)	1,586 (5.5)	1,495 (5.9)	1,482 (6.7)	1,781 (4.2)
10 ~29인	1,705 (6.2)	1,808 (6.1)	1,787 (6.5)	1,728 (4.5)	1,857 (6.4)	1,862 (5.4)	1,694 (4.9)	1,712 (6.7)	2,180 (4.7)
30 ~99인	1,856 (10.5)	2,005 (8.0)	1,965 (9.5)	1,910 (6.8)	2,061 (7.4)	2,078 (7.9)	1,901 (9.3)	1,864 (7.2)	2,468 (7.4)
100~299인	2,067 (15.8)	2,230 (7.9)	2,150 (12.7)	2,160 (10.4)	2,249 (6.1)	2,357 (5.6)	2,162 (6.3)	2,112 (8.4)	2,797 (3.0)
300~499인	2,357 (10.4)	2,474 (5.0)	2,394 (9.1)	2,380 (6.6)	2,501 (4.9)	2,623 (1.8)	2,418 (2.7)	2,233 (1.5)	3,221 (1.4)
500인 이상	2,718 (17.5)	3,043 (11.9)	3,123 (23.0)	2,763 (9.1)	3,048 (11.3)	3,243 (5.8)	2,905 (6.9)	2,488 (12.8)	4,338 (1.5)

주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상승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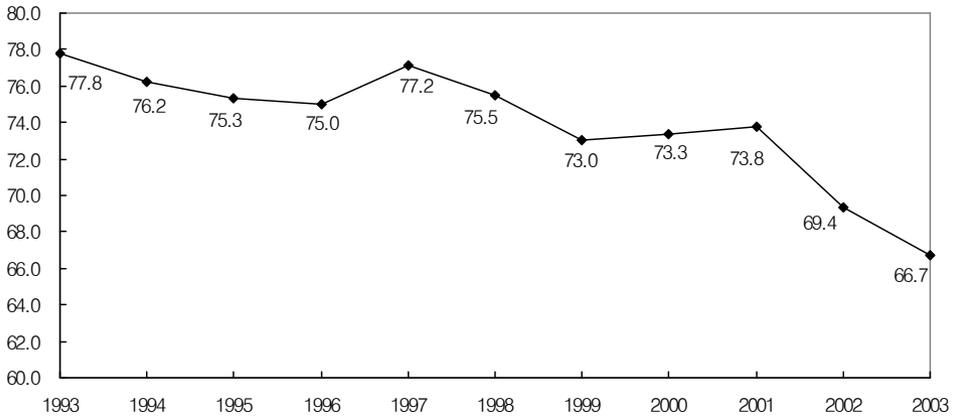
자료 :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

○ 500인 이상 사업체와 미만 사업체간 임금격차, 1993년 이후 가장 높아

- 2003년, 500인 이상 사업체의 임금은 3,043천원으로 전년대비 11.9% 상승하였으며, 10~499인 사업체는 2,031천원으로 전년대비 7.7% 상승
- 500인 이상 사업체의 임금수준을 100.0으로 하였을때 10~499인 사업체의 임금수준은 2003년에 66.7을 기록하여 199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으며, 2002년 이후 2년 연속 하락하였음.

[그림 5] 500인 이상 사업체 대비 10~499인 사업체의 임금수준 추이

(단위 : 500인 이상=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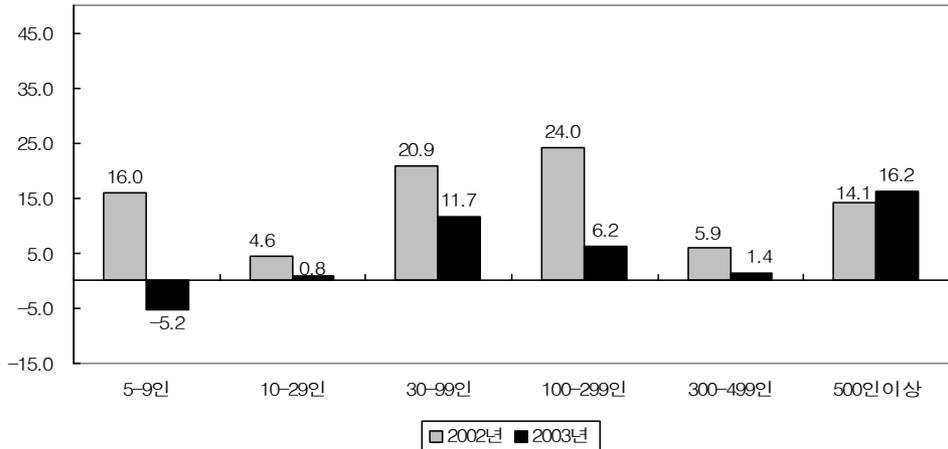


○ 특별급여가 규모간 임금격차 확대를 주도

- 2003년의 규모별 특별급여 상승률을 보면, 5~9인 사업체는 전년대비 5.2% 하락한 반면, 500인 이상 사업체는 16.2% 상승하여 규모별 차이가 뚜렷
- 2003년에 500인 이상 사업체가 상대적으로 높은 특별급여 상승률을 나타낸 이유는 1월의 5~9인 사업체 특별급여 상승률이 119.1%이었던 것에 비해 500인 이상 사업체는 285.8%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것의 영향이 지속된 것임.
- 2003년에 나타난 사업체 규모간 임금격차 확대는 500인 이상 사업체의 높은 특별급여 상승률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

[그림 6] 규모별 특별급여 상승률 추이

(단위 : %)



◆ 남녀간 임금격차 소폭 확대

○ 남성의 임금상승률이 여성에 비해 2.0%포인트 높게 나타남.

- 2003년 남성근로자의 임금상승률은 9.7%를 기록하여 여성의 7.7%에 비해 2.0%포인트 높게 나타남.
- 2003년의 남성 근로자 임금수준을 100이라 했을 때 여성 근로자의 임금수준은 62.4로 나타나 전년(63.5)과 비교하여 남녀간 임금격차가 다소 확대
- 전년인 2002년의 여성 근로자 임금수준은 남성의 63~64%대였으나, 2003년에는 이보다 낮은 62%대를 유지

<표 4> 성별 임금수준 및 상승률 동향

(단위: 천원/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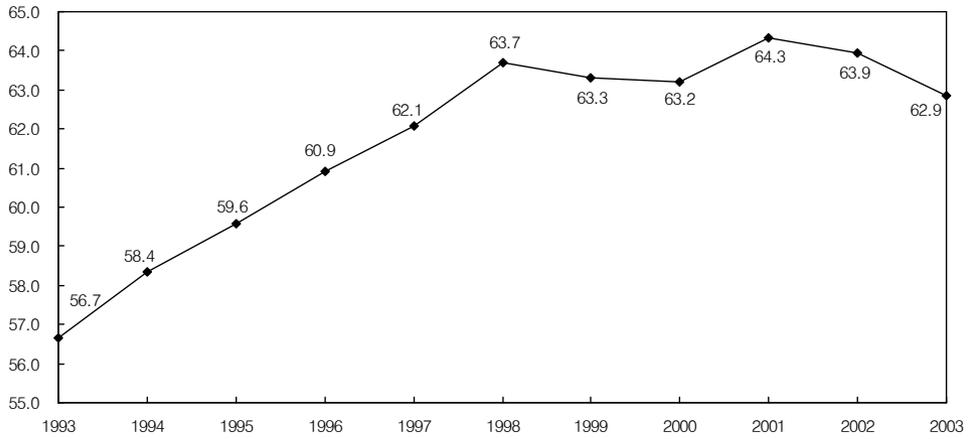
	2002	2003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0월	11월	12월		
전 체	1,948 (11.2)	2,127 (9.2)	2,102 (12.9)	2,014 (8.3)	2,165 (8.6)	2,227 (7.3)	2,034 (7.9)	1,939 (9.0)	2,710 (5.7)
남 성	2,193 (11.0)	2,406 (9.7)	2,376 (13.8)	2,274 (8.8)	2,447 (9.1)	2,527 (7.4)	2,298 (7.9)	2,188 (9.6)	3,094 (5.6)
여 성	1,393 (10.8)	1,501 (7.7)	1,487 (10.6)	1,430 (6.7)	1,532 (6.4)	1,554 (6.8)	1,441 (7.8)	1,379 (7.0)	1,843 (6.0)

주: 1) 5인 이상 비농전산업을 대상으로 함.
 2)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상승률.

자료: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

[그림 7] 연도별 남성 대비 여성 근로자의 임금수준 추이(10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 남성 임금총액=100.0)



노동동향

노사관계 동향

김정우*

I. 노사분규 동향

◆ 분규발생건수 감소, 분규참가자수·근로손실일수 대폭 증가

- 2004년 3월 15일 현재 노사분규 현황을 살펴보면, 전년동기에 비해 발생건수는 다소 감소한 반면, 분규참가자수와 근로손실일수는 대폭 늘어남(표 1 참조).
 - 노사분규 발생건수는 16건으로 전년동기 22건에 비해 다소 감소
 - 근로손실일수는 59,661일로 전년동기 37,230일에 비해 크게 증가
 - 분규참가자수가 전년동기의 2,271명에서 21,037명으로 급격히 늘어난 것은 2003년 초의 분규참가자수가 예외적으로 적었고, 올해 들어 쌍용자동차, 외환은행 등 비교적 큰 규모의 기업에서 부분 및 전면파업이 진행되었기 때문임.

<표 1> 노사분규 주요지표 동향

(단위: 건, 명, 천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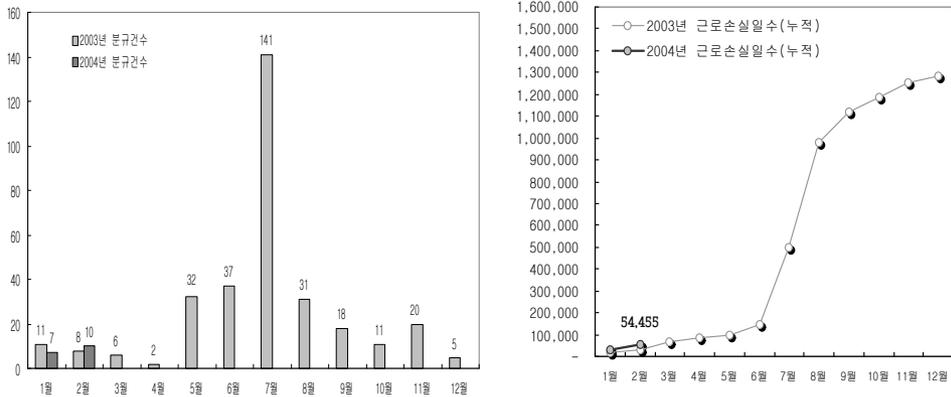
	2002. 3. 15	2003. 3. 15	2004. 3. 15
노사분규발생건수	23	22	16
분규참가자수(명)	16,904	2,271	21,037
근로손실일수(천일)	152	37	60

주: 당해년도의 누적치임.

자료: 노동부.

* 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kjw@kli.re.kr).

[그림 1] 노사분규건수 월별 추이(2003, 2004년)



II. 노동정책 동향

◆ 노동부, 대통령 업무보고

○ 김대환 노동부장관은 3월 4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금년의 노동부 7개 중점과제로 ‘비정규직 보호’, ‘일자리 만들기’, ‘주5일 근무제’와 ‘외국인고용허가제’의 정착, ‘퇴직 연금제 도입 추진’,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노사갈등 관리를 통한 사회적 비용 최소화’ 등을 발표함.1)

－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대책과 관련하여 노동부는 ‘차별해소 및 남용규제를 위해 관련 법률의 입법을 금년 내에 추진’할 방침임.

· 관련법률 : (가칭)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

－ 이와 함께 지난해부터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검토하여 온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조속히 확정, 추진할 계획임.

·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방향 요지 : 정규직의 업무와 비정규직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여 인력을 운용, 업무내용 등을 감안, 단계적 처우수준 개선, 정부용역

1) 노동부 업무보고의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 홈페이지 노동부 뉴스란(<http://molab.news.go.kr>)의 첨부파일 「2004년 주요 업무계획」(2004. 3. 4.)을 참조.

계약제도 개선방안 강구

- 일자리 만들기와 관련해서는 일자리만들기 민관합동위원회를 구성하여 경제산업 부문과 고용복지 부문으로 나누어 각 부처별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이를 위해 고용안정인프라와 서비스를 대폭 확충할 계획임.
- 주5일 근무제가 산업현장에 원만히 정착될 수 있도록, 임금 보전·휴가제도 관련 쟁점을 둘러싼 임단협 교섭이 원만히 타결되도록 지도해 나감과 동시에 법정시기 보다 앞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기업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임.
- 노사관계 취약업종과 분규다발 대규모사업장의 노사관계 개선을 통해 노사분규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사관계 개선 전문T/F’를 구성·운영하여 분규요인을 사전에 찾아 해소하는데 주력하는 한편, 공공부문이 민간부문 노사관계의 모범적인 선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임.
 - 노동위원회가 노사갈등의 사전예방과 사후적 분쟁조정에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 확대를 추진하고, 노동위원회 전문인력 보강 등 인프라도 확충함.
 - ※ 한편 노동부는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중인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방안”은 상반기 중에 노사정위원회 논의를 통해 최대한 합의도출을 추진하고, 그 논의결과 등을 토대로 하반기에 정부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임.
- 이와 함께 퇴직연금제 도입을 위한 입법을 연내에 추진하고,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위한 입법도 노동부안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17대 국회 개원 이후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법제도 개선도 조속히 추진해 나갈 것임을 밝힘.

◆ 노동부,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공포, 시행

-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중 개정령이 2월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2월 25일 공포된 후, 3월 10일 시행규칙과 고시가 공포되어 시행되게 됨.
-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의 주요 내용
 - 목적
 - 주5일 근무제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이로 인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지원대상

-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상시근로자를 기준으로 광업 300인 이하, 제조업 500인 이하, 건설업 300인 이하, 운수·창고 및 통신업 300인 이하, 기타 산업 100인 이하)으로 한정됨.
- 지원요건
 - 법정시행일 6개월 이전에 개정 근로기준법을 적용한 경우(현재 법정근로시간 단축시기는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는 2005년 7월 1일, 10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의 경우는 2006년 7월 1일임)
 - 근로시간을 단축한 이후 정규직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하여 근로자수가 단축전 보다 증가한 경우
- 지원내용
 - 근로시간 단축전 근로자수와 단축후 근로자수를 분기 단위로 비교하여 단축전 근로자수보다 증가한 인원에 대해 1인당 월 50만원씩 지원함.
 -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시점부터 해당 사업장 규모별 근로시간 단축 법정시행일까지의 기간 동안 지원됨.

◆ 노동부 "고용평등프로그램" 도입

- 노동부는 민간기업의 여성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의 일환으로 "고용평등프로그램"의 제정 및 추진계획을 국정과제회의에 보고
 - 이에 따르면 기업은 채용·승진·배치 등에 있어 남녀인력상황을 분석하여 여성이 적게 고용된 분야가 있을 경우, 이의 개선을 위한 고용목표와 이행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여 노동부에 제출하고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함.
 - 한편 정부는 매년 고용평등계획의 적정성과 고용평등계획 이행실적을 평가하여 우수한 기업에 대해 정부 조달계약과 연계하여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공기업 및 정부산하기관은 경영평가에 반영)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임.
 - 이상의 "고용평등프로그램"은 기업부담을 고려, 올해는 여성 고용률이 전반적으로 낮은 공기업 및 정부산하기관, 2005년은 1,000인 이상 기업에 대해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등 단계적으로 실시할 예정임.

Ⅲ. 노사단체 및 단위사업장 동향

◆ 2004년 임금협상의 내용을 둘러싼 노사간 공방 진행

- 경총과 전경련은 각각 성명을 통해 2004년 임금조정에 관한 기본입장을 발표
 - 경총은 3월 17일, “2004년 경영계 임금조정 기본방향”을 확정·발표했으며, 그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음.
 - 상대적으로 혜택을 누리는 300인 이상 대기업의 임금은 2003년 수준에서 동결하며, 급격한 임금경쟁력 악화를 겪고 있는 300인 미만 중소기업은 국민경제 생산성 기준에 입각한 3.8% 범위 내에서 인상·조정할 것을 권고
 - 올해 주 40시간제를 도입하는 기업은 근로기준법 개정 취지에 맞게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을 개정
 - 임금피크제, 직무급제 등 성과주의 임금체계의 확산
 - 정기승급제도를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장기계획 수립을 권고
 - 고정상여금의 비중을 축소하고, 성과에 연동되는 변동상여금의 비중을 높여 임금관리의 유연성 제고
 - 전경련은 3월 19일 “경총에서 제시한 임금조정안과 관련한 전경련 입장”을 발표
 - 전경련은 경총에서 제시한 임금조정안을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통해, 생산성을 초과하는 임금인상으로 인한 경쟁력의 위기, 주40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인한 추가비용, 높은 청년실업 등의 문제해결을 위한 합리적 안으로 평가함.
- 양대노총은 각각 성명을 통해 경총의 임금조정안에 대한 반대를 천명
 - 한국노총은 경총 주장대로 임금을 동결할 경우, 작년 물가인상률 3.6%를 고려하면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3.6% 하락될 것이며, 근로기준법의 내용대로 단체협약을 맺을 경우에도 휴일·휴가가 줄어드는 등 노동조건의 후퇴가 불가피해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를 강행할 경우 총파업으로 대응할 것을 밝힘.
 - 민주노총 역시 성명을 통해 ‘경총의 임금조정안은 경제성장률, 물가인상률, 기업의 수익성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제안으로 기업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돌리는 것’이라 주장하며, 이 지침이 철회되지 않으면, 노사관계의 급격한 갈등이 초래될 수 있고, 대화상대에서 경총을 배제할 것을 검토할 것임을 경고

◆ 근로자파견 대상업무 확대를 둘러싼 노정간 공방 진행

- 노동부, 근로자파견 대상업무 확대 고려 언급
 - 노동부는 3월 4일 있었던 청와대 업무보고 자료, 「2004년 주요 업무계획」에서 파견대상업무는 확대하고 불법파견에 대한 처벌은 강화하는 방향을 언급
- 양대노총, 성명을 통해 파견업무 확대방침 반대 표명
 - 한국노총은 ‘파견대상업무가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지금도 불법파견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파견대상을 확대한다는 것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더욱 확대하는 쪽으로 작용할 것’이라 주장하며 반대표명
 - 민주노총 역시 ‘파견노동이 급속하게 확산되는 현 상황에서 파견업종을 확대하게 되면, 기존의 불법파견에 대해 합법의 면죄부를 줄뿐만 아니라 대다수 기업에서 정규직 일자리가 파견직으로 대거 전환되어 비정규직을 늘리게 될 것’이라며 반대표명

◆ 금속산업연맹 완성차 4사 노동조합, “산업발전 및 사회공헌기금” 조성 제안

-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대우자동차, 쌍용자동차 등 금속산업연맹 산하 완성차 4사 노동조합은 3월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산업발전 및 사회공헌기금”의 조성을 제안
 - 이들은 ‘고용비중과 산업연관성이 매우 큰 자동차산업은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무 또한 지니며, 자동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로서의 국민을 상징할 때 기업의 이익을 사회적으로 환원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
 - 구체적으로 순이익의 5%(제안액 1,781억)를 “산업발전 및 사회공헌기금”으로 적립하고 이를 노사공동기구를 통해 운용할 것을 제안하며, 기금은 자동차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기 위한 산업정책 개발 및 자동차산업 노동자들의 고용·숙련향상 등에 쓰여야 함을 피력
- 경총, 완성차 4개사 노동조합의 제안 거부
 - 경총은 성명을 통해 과도한 임금인상으로 기업의 경쟁력이 크게 저하되고 고용에 악영향을 끼치는 현 상황에서 다시 이익에 대해 교섭하자는 노조의 제안은 수용할 수 없음을 밝힘.